

# ‘꿀잼도시 광주 대표 상품’ e스포츠 투자 확대해야

광주시, 지원 예산 매년 삭감·동결 대회 유치·인재 양성 등 차질 우려 전국 최대 경기장 운영 실적 저조 “장애인 특화 등 콘텐츠 강화 필요”

광주시가 ‘꿀잼도시’ 도약을 위한 대표 상품으로 내세운 ‘e스포츠’에 대한 지원을 줄이면서 활성화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내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기는커녕 삭감되거나 동결되면서 대회 유치나 인재 양성 등에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광주시와 지역 e스포츠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년 e스포츠 예산은 올해 24억여원과 비슷한 28억8500만원으로 확정됐다. 국비 4억원이 추가로 늘었지만 당초 계획된 32억원에는 못미쳐 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는 전국 최대 크기의 e스포츠 대회

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아시아 e스포츠 메카’를 외치며 조선대 해오름관에 ‘광주e스포츠경기장’을 건립했다. 이곳은 주경기장 1005석, 보조경기장 160석 규모로 국내 상설 e스포츠경기장 중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하지만 규모에 비해 운영실적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곳에서 열렸던 대부분 행사들은 ‘아마추어 대회’에 국한되었고 이마저도 매년 같은 내용의 대회가 열려 갈수록 참여와 호응은 줄고 있다. 실제 올해 평균 대회 관람객은 40여명에 불과했다.

이는 최근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행정 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김나운 광주시의원은 “e스포츠경기장이 개관한 지 5년이 됐는데도 활성화 정책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고도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예산은 줄고 신규사업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시는 지난 2019년 ‘e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후 문체

부의 e스포츠 시행계획 반영을 위해 진흥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선제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집행부의 추진 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2022년 강기정 시장의 ‘월요대회’를 통해 △광주만의 특색있는 e스포츠 대회 △온가족이 즐길수 있는 e스포츠 등을 만들어 ‘광주를 꿀잼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은 그동안 변화가 없다가 오히려 올해에는 전년에 비해 8억여원이 삭감됐다.

예산 삭감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지역 e스포츠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인재 양성을 통해 게임·e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광주e스포츠교육원은 지난 2021년 15억원이 책정됐으나 올해 예산은 3억8000만원으로 75%나 감소했다.

정연철 e스포츠교육원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던

교육원이 올해 관련 예산이 없어서 문 닫기 직전까지 갔다”며 “다행히 시에서 기관의 필요성·연속성 등을 판단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줬지만,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 예산에 코치·강사 운용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 당장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등과 협업해 지역 고교·대학교에 e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국제 e스포츠 교류 추진 등을 진행하는 아시아e스포츠산업지원센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설립 당시인 2022년 15억원에서 올해 예산은 9억 60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해당 예산은 내년까지 동결됐다.

전문가들은 광주 e스포츠가 ‘꿀잼 도시’ 대표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 강화 등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나운 시의원은 “e스포츠는 무한한 성

장 잠재력을 지닌 미래 신산업으로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게임사와 협업한 지역산군 연계 콘텐츠 개발에 힘써야 한다. (광주시장배 e스포츠 대회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광주시만의 특화된 ‘e스포츠 도시’ 이미지도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관 광주장애인e스포츠연맹 전 사무국장은 “광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장애인e스포츠단이 창단됐다. 이 강점들을 살려 ‘장애인 특화산업’도 꾀해 볼 수 있다”며 “e스포츠인을 꿈꾸는 장애인들이 이곳을 찾는다면 미래먹거리로서 충분히 특색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 전체 예산이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 내년도 관련 분야 예산이 동결됐다”면서 “e스포츠 대회 유치 등을 추진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병하·정성현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

국회 인사청문회... 與 의원 불참 정계선 “헌법질서 수호 모든 노력” 민주 “26·27일 임명동의안 처리”

마은혁(61·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3일 “계엄 선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나 대법원 태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태도로 안다”고 밝혔다.

마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마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여론의 주장에 대해선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제가 재판관이 된다면 신속하고 충실하

게 심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과거 10·26 사건, 12·12 사태가 떠올랐다고 했다.

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헌재가 그동안 확립한 성과에 세대·지역·젠더·이념 등을 둘러싼 갈등, 저출생과 고령화, 기후위기 문제 등 새로운 과제와 관련해서도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등을 묻는 질문에는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루어야 할 탄핵 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말을 아꼈다.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제가 헌법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헌법질서를 수호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청특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국회는 24일에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변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26일이나 2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소속 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이념적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관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마은혁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유치원·한옥 내·외부·방바닥·전원주택·경로당·아파트·펜션·찜질방·카페·홈  
외벽·목재·양어장·물탱크·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숯,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공구입시 시외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